

# 한국타이어,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 삼성증권, 인지도 제고로 판매확대 가능 ... 메이저 자동차 납품여건

삼성증권은 11월13일 세계시장에서 한국타이어의 인지도 제고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매수> 의견과 함께 새 목표가로 종전 대비 13.3% 높아진 2만400원을 제시했다.

김학주 애널리스트는 “한국타이어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것은 아니나 판매 네트워크의 한계로 세계 소비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왔다”며 “그러나 매년 공장 1개씩을 증설해야 하는 수준인 500만본 이상 판매량이 늘면서 한국타이어가 중국, 헝가리 등으로 빠르게 생산기지를 확장해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전망이어서 인지도 개선과 함께 30%에 이르는 비합리적 판매가 할인폭을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자동차의 원가경쟁에서 패배한 GM과 포드, 폴크스바겐 등이 원가절감 필요성이 절실해지면서 소형 자동차에만 타이어를 납품해온 한국타이어가 고급자동차로 대상을 확대해나갈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선진기업들과 격차를 축소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삼성증권은 한국타이어가 해외 인지도의 개선으로 가격인상이 수월해지면서 판매범인으로부터 기대 이상의 지분법 평가이익을 거두고 있다면서 이를 반영해 2006년과 2007년 주당순익 전망치를 종전보다 각각 5.5%, 4.6% 높여 잡았으며, 이후에는 성장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13>